

연예

10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One pick

핫이슈



배우 한소희와 박형식(왼쪽부터)이 23일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트랙 #1'을 내놓는다. 사진제공 | 디즈니+

뮤직드라마 '사운드트랙 #1' 박형식·한소희 달달 케미 관심

배우 박형식과 한소희가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20년 지기 친구 사이로 변신한다.

이들은 설렘인지, 편안함인지 모를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디즈니+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트랙 #1'에 담아 23일 내놓는다. 봄 시즌에 딱 맞는 말랑말랑한 로맨스 드라마로 기대를 모은다.

드라마는 사진작가 박형식과 작사가 한소희가 우연한 기회에 2주 동안 한 집에 머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온라인에는 노래와 함께 박형식과 한소희의 '케미스트리'에 벌써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화려한 이목구비와 개성 넘치는 패션 스타일로 MZ세대 사이에서 '워너비'로 꼽히고 있다.

"지금껏 연기한 캐릭터 중 실제 성격과 가장 비슷했다"면서 드라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온 이들은 시리즈 공개 당일인 2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드라마 촬영 뒷이야기를 밝힌다.

드라마에 삽입된 OST도 시청자의 기대를 키우는 요소다. 제작진은 규현·김종국·스탠딩예그·NCT 도영 등 스타들이 가창한 OST 곡들을 영상 곳곳에 담아 설렘을 극대화시켰다. '뮤직드라마'를 표방하면서 올해 초부터 일찌감치 음원을 발매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전세계 시장 휩쓰는 한국 콘텐츠의 힘

“한국 배우에 반했어” 할리우드 잇단 구애



정호연

배두나

박서준

정호연, 쿠아론 감독 첫 드라마에 배우나 스나이더 감독 SF물 출연 박서준 '더 마블스'로 MCU 합류 전종서 '모나리자...' 이미 호평

영화 '기생충'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까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면서 한국배우들을 향한 할리우드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연기 데뷔작 '오징어게임'으로 단숨에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정호연은 '로마'와 '그레비티'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두 번이나 받은 거장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첫 드라마 시리즈 '디스클레임어'에 캐스팅됐다.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디스클레임어'는 TV다큐멘터리 기자가 한 소설이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은 뒤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스릴러물이다. '캐롤'로 잘 알려진 케이트 블란켓이 주인공 기자 역을 맡고 정호연은 그의 푹푹하고 야망 넘치는 조수로 분한다.

미국드라마 '센스8'부터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등에 출연하며 '원조 넷플릭스의 딸'이라는 별명을 얻은 배우는 최근 영화 '저스티스 리그' '300' 등을 연출한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 넷플릭스 오리지널 SF 영화 '리벨 문' 출연을 확정했다. 은하계를 위협하는 폭군과 그의 군대에 맞서는 전사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SF 영화로,

소피아 부텔라, 찰리 허냄, 디몬 하운수, 레이 피셔 등이 힘을 보탠다. 4월 크랭크인한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이터널스'로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한 마동석은 할리우드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준비 중이다. 2019년 주연작 '악인전'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영화와, 이서진이 주연했던 OCN 드라마 '트랩'의 리메이크 시리즈 '더 클립'의 주연은 물론 제작까지 맡아 눈길을 끈다.

박서준은 '캡틴마블'의 속편 '더 마블스'에 캐스팅돼 마동석,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수현에 이어 한국배우로는 세 번째로 MCU에 합류하게 됐다. 박서준 주연의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팬으로 알려진 니아 다코스타 감독의 적극적인 러브콜로 합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촬영을 마쳤으며 내년 개봉한다.

올해는 전종서가 할리우드 진출작 '모나리자 앤드 블러드 문'으로 세계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비범하면서도 위험한 힘을 지닌 소녀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이다. 2016년 '더 베드 배치'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이 연출했다.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의 주역인 배우 윤여정·이민호·김민하·진해(왼쪽부터)가 18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애플TV+

윤여정 “아카데미상이 날 바꾸진 않아”

“애플TV+ 오리지널시리즈 ‘파친코’ 시대와 나라 관통하는 메시지 담아” 이민호 “윤여정 선배님과 연기 영광”

한국배우 첫 아카데미상 수상자 윤여정(75)과 한류스타 이민호(35)가 25일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를 통해 만난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까지 격동의 시기를 보낸 순자(윤여정)의 시선으로 한민 이민 가족의 이야기를 4세대에 걸쳐 그려낸 '파친코'는 벌써부터 “올해 최고의 작품”이라는 해외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윤여정과 이민호는 “방대한 80년 역사를 따라가는 가족의 이야기는 시대와 나라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힘써 말했다.

●윤여정 “오스카상, 늙어서 받아 다행이죠”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에 이어 또 다시 한민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에 출연한 이유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들 때문이다. '미나리'와 '파친코'에 참여한 많은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늘 존재했다.

“저도 미국에서 9년 정도 살았지만 친한 친구들만 만났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자란 우리 아들은 늘 느꼈대요.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은 국제 고아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늘 마음이 갔죠.”

윤여정은 지난해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여전히 똑같은 친구들과 놀고, 똑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혹자는 “늦은 나이의 성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지금 받아 다행이다”며 웃는다.

“만약 30~40대에 상을 받았으면 마음이 동등 뚝을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난 스티븐 연(‘미나리’ 주연)에게 ‘너는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만 되고 상을 타지 않은 게 다행이다. 내가 지금 상을 받았으면 너는 지금의 네 모습이 아닐 거다’고 말했죠. 물론 수상이 왜 기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이미 많은 걸 겪은 늙은 사람이죠. 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죠. 나는 그냥 나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민호 “초심 찾게 한 작품”

윤여정이 연기하는 순자의 젊은 시절(김민하) 사랑이지만, 성공을 위해 매물치게 떠나가는 남자. 이민호가 지금까지 선보여 왔던 로맨스 인물과는 180도 다르다. 악역에 가까운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수고 원초적으로 해석”했다.

“특정한 이미지를 위해 작품을 택한 적은 없지만 하다 보니 굉장히 멋있게만 정제된? 판타지스런 인물을 많이 연기했어요. 하지만 이번 캐릭터는 전혀 달라요. 표현 방식 또한 정 반대입니다”

‘파친코’를 촬영하며 오랜만에 “시청률, 관객수 등 흥행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오디션을 거치며 “초심”까지 찾았다.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13년 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죠. 흥행이 아닌 오로지 내 연기만 생각했던 그때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파친코’를 선보이게 된 건 “행운”이다. 윤여정과 “함께 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까지 누렸다.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이경재 선배님과도 같은 이야기를 나눴죠. 윤여정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유산의 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이승미 기자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우와- 센추리냉난방기 사셨네요. 요즘 인기인데 정말 좋아요?

당연하지 센추리 냉난방기는 45년동안 원무법인 한 냉동공조기(회사)로 사무-업소용 냉난방기 전문회사라고 유자비 절감에 냉방 난방 절되고 구매조건도 너무 좋아. 난 할부로 구매했지

사장님이 구매하신 장기 36개월 할부는 초기비용 부담없이 무보증 무담보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특히 업소용은 유자비와 냉방, 난방능력과 구입조건이 보인답니다. 센추리는 이 4가지와 체계적인 A/S시스템과 사후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역사- 센추리 냉난방기가 최고구나- 좋은 조건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쓰시고 확실한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 냉방·난방 성능이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